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학습환경 사례연구

김승일* · 이문준**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밀접히 이루어지듯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학문 교류 등을 위해 국외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고학력자가 되어야 상류사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훌륭한 인재로 양성해야 된다는 집념으로 해외 유학을 갈망하는 교육열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교육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미래의 대학 교육을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같은 선제적 방안들을 기획하고 있다(김화경, 2019). 무용학과와 같은 경우 2005년에 시작된 정부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 무용과가 통폐합되거나 축소되므로 대학무용교육의 개선 방향 및 생존 전략은 꾸준히 논의되었다(정옥희, 2018). 한국 정부가 2015년 7월에 발표한 '유학생 유치와 확대 방안'이라는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수가 160,165명에 달하며 이 중에 중국 유학생은 71,067명으로 전체 수준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한국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학생들이 지각한 학습 환경, 교육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학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유학생의 학습 환경 문제와 기타 대인관계 문제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대학 교육체제 전환, 각 지방 정부의 해외 유학 인재유치 정책과 대학 교사 직장 평가 등 취업

* 주저자, 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 과정, liwenjun102494@naver.com

요소가 고려되어 높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한국으로 유학 온 예체능전공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각 대학 예체능 박사학위과정 중국 유학생 수는 2013년에 136명이었는데 2020년에 3043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중국대학 개혁이 점차 심화되면서 한국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러 오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원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지각된 학습 환경의 부족을 파악하여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과의 학습 환경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환경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연구의 맥락에 따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사용하지만 광의의 의미로 볼 때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은 “학습자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환경, 심리·정서적 조건,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 등의 제반 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인우, 김갑수, 김정, 2006). 따라서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수업뿐만 아니라 학습자 주변에 있는 인적, 물적, 학습자 본인의 심리적 차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매우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창민, 박인우 2012).

한국 국내 중국 유학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들 살펴보면, 탁정(2018)의 재한 중국 조선족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언어문제에 대한 질적연구, 왕행(2016)의 한국 내 유학생의 일상 언어 학습과 문화적응, 유나(2017)의 중국인 유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 과정 연구 등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언어 학습에 대한 것으로 무용전공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환경 실태 조사나 사례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학 동기나 이유, 학습 만족도, 학습몰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로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심리적 변화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무용전공 유학생의 지각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전공 유학생과 같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언어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이해, 실기와 이론 수업 배정의 적절성, 한중 대학 교육방식으로 인한 학업적인 어려움 등 요인들은 불가피하게 학습 환경에서 지적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관점에서 국내 대학의 학습 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그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규명하여 학습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이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적용하여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학습 환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주제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느끼는 학습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떠한 요인이 요구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인 참여자들은 다양한 학습 환경을 경험하였고 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3개 대학 재학 중인 무용학 박사학위과정 중국 유학생 3명을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중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중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쳐 현재의 학습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있고, 상당한 학문적 학습 열정이 있으며 2년 이상 유학경험 있는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였다.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위 과정	유학 기간
A	남	27	공연예술무용학박사	3년
B	여	28	공연예술무용학박사	4년
C	남	28	공연예술무용학박사	3년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과 문헌 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 자료수집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포털사이트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수집하였으며 심층 면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충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공식적인 면담 1회를 실시하였으며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와 비면담자의 관계와 면담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이었다. 면담의 질문들은 연구자의 용어가 아닌 현장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실제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심층적인 면담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로 옮겨 한국어로 번역하여 쓰는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사하면서 면담자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후 관계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은 재구성하였으며 사적인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의 각각 별개의 파일(file)로 저장하였다.

3. 자료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많은 양의 원자료(raw data)를 어떻게 이해,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에 자료를 어떻게 분류, 검토, 검증하며 보고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문헌 자료와 면담자료를 Spradley(1980) 제안하는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각 연구 참여자 별로 사례기록(case record)과 개인별 종합 프로파일(multi-profile)을 작성하여 부호화(coding) 작업을 한 후 연구문제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 주제들과 핵심주제들을 도출하고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밀히 파악하여 기술 할 내용과 인용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면담내용 범주화 과정과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내용 범주화 과정 및 분석

핵심 주제	2차 부호화	1차 부호화
교육 차원의 학습 환경	교육현장에서 존재하는 '구멍'	실기 수업에 대한 막마름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 지원
		수업용어 정리가 시급하다
	서로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음	한국 학생과의 교류 장애
		교육방식의 차이
		중국 학생 상황 고려
유학생 집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음	학생 어학능력 및 학습태도	
	무용공연은 만족함	공연에 대한 만족
		문화 분위기에 대한 만족
환경 차원의 학습 환경	외국인 입학제도	입학제도의 재검토 필수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는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후 질적 연구 전문가, 무용학을 전공한 박사들과 검토함으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편견을 제거하도록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그리고 연구의 과정 기술은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부호화 및 범주화 과정 그리고 하위 주제와 핵심주제의 도출 과정과 협의 사항,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동료와의 동료검증(Peer-Debriefing)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구성원 간 검토)의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진술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를 믿을 수 있도록 친밀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승일, 2001). 그러나 무용전공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사적인 관계이지만 경계를 잘 지키면서 연구 인터뷰에 응했다. 진실성 있고 심도 있는 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우호적인 관계 맺기와 연구자의 정직성을 믿게 하기에 노력하였다. 또는 한국말이 서툰 관계로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서술해서 옳겼다.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개인적 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서약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교육 차원의 학습 환경

가. 교육현장에서 존재하는 ‘구멍’

연구 참여자는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 무용 실기 수업의 부족과 연습실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적인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교육시설의 배정에 대한 불만족은 복합적이었다.

나에게 제일 아쉬운 유일한 점은 실기 수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야. 우리는 이론 위주로 하지만 최소 실기 수업이 한 학기 하나만 있더라도 좋겠다고 생각해. 이론이랑 실전이 서로 결합해야 돼. 실기대학원은 실기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다 B캠퍼스에서 하고 그 수업의 담당 교수가 자기 지도 교수가 아닌 경우 청강하기도 불편해. 연습실 같은 경우 만약 자주 쓸 수 있고 더 많으면 좋겠어 (연구 참여자A 인터뷰내용).

실기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대학원 실기 수업은 그냥 그래. 진짜 배우고 싶으면 학부생 이랑 같이 수업 들어가야 돼. 중국 대학도 마찬가지야. 신체적인 것과 테크닉들은 학부 때만 잘 배울 수 있어(연구 참여자B 인터뷰내용).

너무 속상해. 우리 학교는 연습실도 그렇고 실기 수업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거의 없다고. 연습실은 전공별로 하나씩 있고 학부생, 석사, 박사 다 같이 쓰는 거야. 5개 팀이 같은 시간에 같이 쓰는 경우 많아. 실기 수업은 듣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 이론 교실도 적고 등록금 엄청 비싼데 의학 빼고는 우리가 제일 비싼 전공인 것 같아. 시설 배정이 나쁜 편인 것 같다고 생각해(연구 참여자C 인터뷰내용).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 실기 수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기 수업 없이 이론 공부만 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의 특성에 있어 전문분야의 어떤 특정한 지식을 단순히 언어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교육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학교 무용교육과 연계적인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무용은 더욱 다각적인 예술성을 표출 하는데 그치지 않고 뛰어난 기량의 무용수를 평가하고 인정받는 것으로도 발전 되었다(이지민, 최상철, 2018).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인 미학과 신체적인 실기가 점점 인지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지원(2003)은 무용교육의 실재를 위한 이론과의 접목은 이론과 실기 사이의 분리된 교육체계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실기교육과 병행한 이론교육의 정립 과정이며 무용 활동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론 체계의 실제적 적응과 응용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렇듯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실제의 무용 활동이 필요하며 이론 수업의 학문적인 바탕과 실기 수업의 실천적인 실험을 결합시켜서 심층적으로 단일한 수업 방식으로 인해 가져온 교육의 한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의 경우, 타 문화 환경에서 무용 교육을 받을 때 문화적응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보다 실제로 경험할 필요가 더 강조되며 전공 이론을 배우면서 실천하기를 통해 배운 것을 심화시킬 기회가 부족하다면 실기 수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다. 이러한 실기 수업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은 예전에 중국에서 학부 무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유학을 와서 대학원 무용과에서 다른 교육 상황과 마주칠 때 일어나는 교육적 부적응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자발적으로 실기 연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연습실이 사용중이거나 사용 신청 안 되는 불편함에 부딪힐 때 학교 교육 시설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무용예술은 실기를 통한 공연예술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제공하고, 이론과 원리 및 개념을 정립하고, 생산된 지식을 축적하고 유통시키는 과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박순자, 2013). 이렇듯 실기는 이론을 산출하는 원재료이고 이론은 실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이론과 실기의 균형은 어느 쪽으로만 기울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의 패턴은 실제의 상황을 근거로 계속 보완해야만 한다.

대학원 무용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양적 팽창 추세인데, 고정적 교육 패턴으로 실행하면 유학하러 온 외국인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유학생의 학문 학습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다. 대학원 무용학과는 학술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각 전공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교육 목표로 무용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기 통해 무용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넓혀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 대학원 무용학과에서는 이론 위주로 수업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교과목만 배정해주고 현장 실습과 같은 실기 수업 없이 하면 실기와 이론이 격리되어 서로 적응되지 못하면 정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인 학생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국과 다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고 다른 문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실기 수업과 같은 현장 실습이나 전공 지식을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임명주(1997)는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의 균형 교육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나 단기적인 투자와 지원으로는 결코 역량 있는 무용인재를 육성시킬 수 없으며,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무용 전문인재를 사회에 배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 예술교육 중 무용교육은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타인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어 각국의 무용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어있어 타 문화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임주미, 손재현, 2021).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을 전공 지식과 타국 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교육과 학습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고 진정한 무용인재가 되도록 실기 수업을 추가로 배정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제화 교육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 소속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 학생이 중국어 배우고 싶고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서로 도와주는 것.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다 망했어. 성공적인 사례 몇 개 있지만, 사실은 한국학생이 지원금을 얻으려고 해서 하는 거지. 서로 언어 수준이 딱 맞는 언어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 만나면 그냥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어떤 계획 있지? 재미있는 게 없니? 말하고 나서 끝이야 (연구 참여자B 인터뷰내용).

우리 학교 장학금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새 외국인을 위한 지원금 많아지는 것 같아. 등록금 100% 면제도 있지만 받기가 어려워. 학점이 다 A+이어야 돼. 그런데 학기마다 외부 교수의 수업이 하나 있어. 외부 교수가 학점을 잘 안 주셔. 박사 과정 교수의 수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구 분야 다르기 때문에 외부 교수가 자주 와. 나는 장학금이 일부 중국 학생에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석사들이 진짜 장학금을 받기 어려워. 처음이니까 학점도 높게 못 받아(연구 참여자C 인터뷰 내용).

각 학교 유학생을 위한 지원을 학교가 재정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며 유학생의 복지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장학금 지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진학 대학 선택 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을 잘 하는 학생은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 급수를 올리고, 학교성적을 잘 받도록 노력하여 등록금의 혜택을 많이 받아 학비의 부담을 낮추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최현실, 2018).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는 없으나 장학금을 지원할 때 유학생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장학금 평가 제도를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피드백 정보로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적 지원을 주는데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학교는 재정이 낭비될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시간 낭비와 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은 입학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 같은 재정적 지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원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외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단지 국내 대학의 재정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김화경, 2019). 대학의 역할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과 차별 없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한국어 도우미 제공, 장학금 혜택 확대와 같은 행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심사 및 선발을 중요시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단계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의 정확한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때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언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 용어정리에 대해서도 요구됨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수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예를 들을 때, 혹은 한국의 어떤 유행어를 말할 때, 못 알아들어. 특히 외래어야. 모르는 문화배경이랑 인물이 많아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벽이 생겨. 공감할 수 없어. 물어봐도 불편한 것 같아. 말을 알아들어도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 안 가. 그래서 수업 용어 정리 필요해! (연구 참여자A 인터뷰내용).

많은 말이 영어에서 온 거라, 게다가 한국사람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해서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다. 전에 무용 의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 많은 해부학 쪽의 말이 있잖아. 한국어 주석도 있기는 하는데 한국어로 외우기 더 편해, 발음이 한자와 비슷해서. 그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를 땀는데 우리를 영어로 외우라고. 그런데 winding라는 영어를 윈드라고 일년 동안 계속 말했는데 학기 끝날 때에 내가 아 winding이었구나. 그때 알아들었어.(연구 참여자B 인터뷰내용).

교수가 외래어를 많이 써. 가끔 중국학생을 고려해서 고유어를 썼는데. 고유어 발음이 중국어와 비슷하잖아. 모르면 우리가 한국학생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의 있으면 한국 학생이 많이 도와줘. 나는 한국말 너무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유학생을 위한 용어 정리하는 책이 있으면 좋겠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잘 봐도 전문 용어를 모르거든. 특히 공통 수업이 있을 때 전통춤, 현대춤, 발레, 공연, 무대 등 많은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 섞어서 써서 못 알아들어. 아무튼 이런 책이 있으면 내가 살래(연구 참여자C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는 수업용어의 정리가 안 되므로 전공 용어의 이해와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기도 하고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업 사전 준비의 부족이기도 하다.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공 용어의 이해와 사용, 소논문 읽기와 작성, 발표 및 과제 준비 등이 있다(이지영,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히는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치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언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의 수단이며 학문 지식을 최대한으로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언어 능력이 있어야 진학할 수 있으며, 입학하게 되면서 전공 분야의 용어를 쌓이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칠 때, 학습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학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2014)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동료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듯,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교수가 수업할 때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영어, 고유어, 한자어를 같이 섞어 쓰게 되면 수업 내용이 헛갈릴 수 있다. 게다가 영어를 쓸 때 한국식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용어를 알아듣기도 어렵고, 사전에서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전공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준 높은 국제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용어정리 작업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발레와 현대무용 등 전공 영어가 많이 쓰이는 경우, 용어가 정리되면 국제적으로 통용해서 학생이 학문 교류할 때나 졸업하고 나서 교

육현장에서 수업할 때에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무용 전공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데 용어정리는 유학생의 한국 문화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용 분야 전문 용어의 개념과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에서 무용 분야의 용어정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수업 내용의 사전 작업 시 외국인 유학생 학습의 어려운 점을 배려하여 용어정리를 해주고 수업 시 가능한 한 설명을 통해 전공 지식을 이해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로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음

다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교수와 교우와의 관계와 같은 학업적 문화 차이와 사고방식 차이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원활히 유학 생활의 적응과 학업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문화 차이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과 친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져.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 안 가고 상대방이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 문화차이 있어서 친밀감이 부족해. 겉으로는 친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멀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연구 참여자A 인터뷰 내용).

내가 본 한국 사람은 모두 다 독립된 개체이야. 혼자 연구하고 혼자 논문 써. 어떤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좋아. 할 수 있을 만큼 다 혼자 해. 그래서 한국 친구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 수업 시간에만 만나. 세미나도 없고 다른 시간에 다 각자 하고 있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인간다움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연구참여자B 인터뷰내용).

한국 사람은 다 독립된 인간인 것 같아. 자기 일에만 신경을 써. 세미나도 없고. 한국 학생이 개인 시간을 잘 즐기는 것 같아. 집에 가면 개인 시간 보내고 싶어서 구애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가 봐(연구참여자C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동창과의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리감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자국문화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친구에게 다가가려 노력해 봤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가 모두 한국 사람이 독립된 개체라고 느껴졌는데 공동작업과 학업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약하고, 문화적 수용 능력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오세경, 김미순, 백보예바아이굴, 2015). 반면, 중국 유학생은 다민족 국가에서 살아왔고 융합적인 문화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강한 민족의식을 지니는 한국인에게 접근할 때 거리감이 느껴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임도경, 김창숙(2011)의 연구에서 한국인 학생이 서양 백인에 대한 선호 경향보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멀다고 밝힌 것이 본 연구에서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한국친구와 관계 맺기의 어려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고 학교생활에 완전히 몰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형성되는 이유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세미나와 같은 학문적인 교류 기회부터 제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면 거리감을 없앨 수 있으며 공동작업과 학술 토론 때 다른 문화 입장의 사고방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다. 유학생 집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음

유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한국인 학생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학생 집단 내부에도 영향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려하는 것은 이 학교의 중국인 학생 수가 많은지, 만약 중국인 학생 많으면 일단 언어 환경이 문제가 생겨. 언어능력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만약 그 학생이 뒤에서 두 번째 발표할 사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발표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만약 같이 수업 듣는 중국 학생들 다 한국말 못하는 편이면 수업 진도가 느려지게 돼(연구 참여자A 인터뷰 내용).

주변 중국 학생이 가져온 불편이 가끔 느껴져. 그래서 나는 항상 중국 학생 많은 수업을 일부러 피해. 나는 과제가 많고 교수가 엄격한 수업을 신청해. 직함을 위해서 박사 학위 따러 온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이미 대학에 취직했어. 학위만 필요해 왔거든. 그들이 연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 없어. 그런데 그들 때문에 수업 진도가 느려져.(연구 참여자B 인터뷰내용).

나와 같이 수업 듣는 중국 학생은 나보다 한국말을 더 못해. 나는 자기 발표를 해야 되고 그 친구의 발표도 대신 해야 돼. 중국 학생들이 수업 때 뒤에 한 줄 앉아서 핸드폰게임을 해. 교실이 적은 데 다 보여. 교수가 화내지. 나도 기분이 나빠져(연구 참여자C 인터뷰내용).

중국 고등교육 제도 변혁의 심화에 따라 대학교의 교사 임용 조건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예전처럼 대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강사부터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으며 무용과에도 예외 없이 높은 학력을 지녀야 직함 평가와 보너스 받는 데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서몽선, 정유진, 김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전공 선택 동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공 선택 동기는 진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학생은 진로를 고려하여 유학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무용수로서 활동하기보다 강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것은 더 안정적 직업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예비군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젊은 강사나 부교수들도 승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와 보증 계약을 하고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여 해외에 가서 학위를 따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학위 취득자 개인 진로를 최적화시키는 것과 중국 대학교 무용과 교육적, 학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위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대학교 석사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하고, 무용학 박사 학위 수여 자격을 갖는 대학교가 한국보다 상당히 적으며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고 해외 유학경험 있으면 임용될 때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깝고 유학비용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문화예술의 유사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한국에 오는 무용과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터디코리아(Study Korea Project)’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양적 증가하게 하는 목표를 세운 후, 국내 대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신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 환경이 점점 변화되어 있다.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사관리나 교과과정의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였고,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학기준과 조건을 낮추기도 하였다(김화경, 2019). 이런 상태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양적 팽창에다 학문 연구에 필요한 언어 능력의 부족은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문 분위기의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17. 2. 20. 개정)’에서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입학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TOPIK 3급 이상 입학 또는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으로 일괄 제시하였다(주경희, 장현목, 2018). 한국어 능력(TOPIK)3급에서 6급까지 상당히 큰 구간이 있으므로 구분되지 않은 입학 요건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수업 때 언어 수준이 상대적 낮은 학생을 고려하여 수업 진도를 맞춰 주지 않으면 학생의 학습 열정이 떨어질 수 있고 학습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반면에 언어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배려로 수업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언어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 대학원 학생이 전공 분야를 연구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지녀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경희, 장현목(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일반대학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40%가 한국어 능력이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언어 수준의 불균형은 교육현장에서 교육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유학생 집단 내부에서도 이로 인해 가져온 불편함이 느껴지고 유학생 한국어 수준을 더 높은 기준으로 높일 것이 요구된다. 입학 시 언어조건이 낮은 학과가 유학생을 모집하는 데 유리하지만 총체적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무용과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유학생의 인원수를 유지하기 보다 수준이 높은 유학생 선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외부적 규정에 부합하는 동시 학과가 내부적으로 입학 심사의 기준을 높이거나 성적평가를 공정성 있고 엄격성 있게 하는 것 등 수단으로 총합 능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 총체의 학문적 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2. 환경 차원의 학습 환경

가. 무용공연은 만족함

연구 참여자는 한국 공연의 내용 및 티켓값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다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교수가 추천한 거고 가끔 한국 친구도 추천해 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정책적인 제한이 없어. 그리고 티켓값이 비싸지 않고 학생이면 할인도 주고. 공연을 볼 기회가 많아. 중국에서는 좋은 공연을 보려면 엄청 큰 공연장에 가야 돼. 티켓도 비싸(연구 참여자A 인터뷰내용).

교수님 자주 추천해주셔. 이게 좋아.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공연이 있으면 바로 공유해. 한국 무용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학로 무슨 공연 있으면 전부 알려주시고 단체 티켓 예매도 도와주셔.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교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어. 공부의 외부적 조건이 상당히 충분해. 그리고 현대무용 창작 분위기가 좋아. 개방적이라고 생각해(연구 참여자B 인터뷰내용).

공연과 같은 외부적인 학습 환경은 무용과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에게 공연 정보를 공유해 주고 있다. 유학생들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알아보기 보다는 교수들이나 한국인 원우의 추천을 통해서 많은 종류의 공연을 알게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이 높은 공연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많은 공연을 볼 수 있지만 입장료는 한국과 비교해볼 때 비싸며 중국 땅이 넓어서 보고 싶어 하는 공연을 보러 쫓아다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참여자가 한국의 문화예술 창작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연 수준과 공연관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정치를 비롯한 많은 민감한 주제로 창작하기에 제한이 있는 데에 비해 한국은 더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창작하는 공연이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러나 공연 정보는 대부분 교수나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며 어느 측면에서 볼 때 공연 정보를 얻는 수단이 단일하다. 변선주(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관객이 평소에 공연의 광고를 접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에 적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전공 분야를 연구하면서 현장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을 홍보할 때 SNS의 활용 등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정보 획득, 상호 교류, 오락 및 심심풀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Chen & Marcus, 2012). 이렇듯 공연 홍보할 때 유학생을 고려하여 SNS 이용이 활용된다면 유학생의 공연 정보 획득, 공연 체험, 공연 즐기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생산적 정보행동을 통해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기업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무용에서도 필요하다(이운정, 서희정, 2020).

따라서 SNS나 공연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관객의 관람만족도와 체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이 낮을수록 모국의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지의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이수범, 김동우,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수준과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까지 함께 고려하여 지향성 있게 SNS를 활용하면 공연 홍보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유학생에게도 상당한 편리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외국인 입학제도

입학제도는 입학의 필수적 서류와 심사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합리적인 입학제도가 우수한 학생의

선발, 지원한 학생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학업능력의 수준이 학교의 전체적 학문 분위기와 교육품질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입학제도가 되도록 검토하고 계속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가 학교의 입학제도로 인해 느낀 불평등과 고민은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 언어 능력의 기준을 높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석사 박사하는 친구가 우리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될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 우리 고생 많이 하고 졸업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원했던 학교 중에 B대학만 면접이 있어. 면접이 필요해. 나도 교수의 얼굴 볼 수 있고 교수도 내 대체적인 이미지 파악하기 가능하니까 (연구참여자A 인터뷰내용).

우리 학교 박사 과정을 들어온 중국대학 강사들이 돈 내고 통역사 불러 와서 통역해주거든. 중국 대학 강사들이 돈 많아, 한국말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논문 잘 써. 분명히 대필이지. 과제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언어야. 내 생각에는 입학할 때 언어 능력 기준이 높여야 돼(연구참여자B 인터뷰내용).

우리 학교 면접이 없어. 전화 면접도 없고, 교수는 작품집으로 심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론 위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 안 가. 면접하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교수도 들어올 외국인 학생 몇 명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라(연구참여자C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는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 등급 상향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경희, 장현묵(2018)은 각 대학 외국인 대학원생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많은 대학에서 TOPIK 3급과 4급을 입학 시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데 어떤 대학들은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가능한 한국어 능력 수준인 TOPIK4급보다도 한 등급 더 낮은 TOPIK 3급을 입학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더 낮은 언어 수준인 2급으로 입학 허가해주는 학교도 있으며 언어 자격 없는 경우에도 예정 교수의 추천서를 받거나 입학 후 어학 연수과정에서 일정량의 한국어 수업 이수하게 하는 예외 규정도 있다. 2급, 3급과 같은 낮은 언어 수준으로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학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으며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수업 진도를 방해하거나 학문 분위기를 깨는 것이 다른 원생들에게 교육적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다.

박미숙, 방현희(2014)의 연구에서는 TOPIK 3급 자격을 갖추고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 대학원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야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학교가 낮은 수준의 언어 자격으로 지원하는 학생을 입학시키면 학생의 학습 능력이 보장되지 못해 대학에서 기대하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쉬운 입학 조건은 고등교육의 근엄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TOPIK 급수는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급수여도 충분한 한국어 능력이 갖추고 있고 학업 수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높은 급수의 TOPIK 자격증을 소지해도 학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따라서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 실기가 아닌 무용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한 면접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을 선발할 때 서류 심사보다 면접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학생의 성향과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면접을 참여하는 교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교의 전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높은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는 유학생 선발을 해야 한다. 한편, 학교의 잘못된 선발이 학교의 총체적 연구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학문 수준 유지와 유학생의 원활한 학업의 진행 두 가지 측면에서 출발하여 입학 조건을 적당히 높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대학원 중국 유학생의 학습 환경을 알아보고 유학생이 지각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3개 대학 재학 중인 무용학 박사학위과정 중국 유학생 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원 무용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은 실기 수업 확대와 실기 연습실과 같은 교육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가 유학생이 원활히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야 하며, 수업 때의 전공 용어의 정리 부족으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의 담당교수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생활적, 학업적인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의 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업 이외에도 교수가 유도적으로 세미나 같은 학문 교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이 국내 예술 공연 수준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연 정보의 공유와 홍보 수단을 더 다양하게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일부 대학원 무용전공 유학생의 학문 연구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불충분하여 이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육의 질이 떨어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입생 선발 언어조건을 높이거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유학생들이 국내 예술 공연 수준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연 정보의 공유와 홍보 수단을 더 다양하게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종합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초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선발하는 유학생의 학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조건을 높임과 같은 입학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결론을 종합하면 중국 유학생의 전공 심화 학습을 위해 실기 수업의 수업도구 개발 및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학생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지원(2003). 무용이론교과의 역할에 기초한 우리 춤 교수법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7, 60-78.
- 김화경(2019). 국내 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6, 141-170.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민진영(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대학원 생활 경험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2), 159-181.
-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2013).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및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110-141.
- 박미숙, 방현희(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해결과정.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3(1), 67-84.
- 박순자(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6), 84-110.
- 서몽선, 정유진, 김혜정(2021).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21(1), 13-27.
- 오세경, 김미순, 백보예바아이굴(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여가 경험의 의미. **여가학연구**, 13(4), 79-99.
- 이수범,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11, 47-79.
- 이운정, 서희정(2020). 문화예술태도, 한국무용지식, 한국무용정보요구도 그리고 한국무용 관람행동의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20(1), 63-74.
- 이지민, 최상철(2018). 무용콩쿠르 참여경험을 통한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 예술 고등학교 3학년 을 중심으로 - **무용예술학연구**, 69(2), 91-102.
- 임도경, 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임명주(1997). 한국 무용교육의 실태와 과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2(0).
- 임주미, 손재현(2021). 다문화교육을 위한 무용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무용학회지**, 20(4), 125-135.
- 정옥희(2018). 기술자본 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미래. **무용예술학연구**, 69(2), 1-28.
- 주경희, 장현묵(2018).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지원 방안 모색: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3), 1213-1232.
- 최성호, 장경원(2018).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615-640.
- 최현실(2018). 외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 71-94.

B. Chen and J. Marcus(2012) “Students’self-presentation on Facebook: An examination of personality and self-construal fact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6), 2091-2099.

김승일(2001). **예술 고등학교 무용교사의 교수활동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변선주(2015). **전통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공연관광 관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이지영 (2017).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업부적응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논문투고일 2021. 08. 14.

심 사 일 2021. 08. 20.

심사완료일 2021. 08. 27.

A Case Study on the Academic Environ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Kim, Seung-il* · Li, Wenjun**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ademic environ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to clarify how to improve the academic environm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form of case studie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dance require the implement of dance technique classes and improved support programs for them. Second, the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expect that professors will help to organize the professional terminology of the course. Third, the quality of the class is affected by the lack of enough Korean language ability of some foreign students. Finally, they want external dance recital information to be more easily accessible. Moreover, the enroll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 needs to be updated.

Keywords: Dance major(무용 전공), International student(유학생), Academic environment(학습 환경), Korean proficiency(한국어 능력), Enrollment system(입학제도)